



김병조 씨는 ... 1950년 전남 장흥 출생으로 광주고를 나와 중앙대 예술대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했다. 동양방송(TBC) '살짜기 웃어예'로 개그맨 데뷔, MBC 일요일밤의 대행진 진행을 맡았고 청춘만세, 뽀빠뽀 등에 출연했다. 현재 방송인 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빙교수 및 동대학 평생교육원 명예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방송 80주년 유공 국무총리 표창, 문화방송 최우수 연기상 수상, 연예인 최초 저축유공 국무총리 표창, 프로듀서 연합회 선정 최우수 진행자상, 행원문화상 예술상 수상, 자랑스런 전남인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수필집 <종가집 배추>가 있으며 현재 김병조의 <명심보감>을 집필중에 있다.

사진=박재환 기자

불교적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어요. 외부 강이다 보니 이웃 종교 분들도 많지만 불교 자체가 인생의 진리니 불교적 구절에서도 많은 분들이 감명을 받아요."

그는 지난주 강의했던 <명심보감> 한구절을 읊어준다. '간경미위선(看經未爲善)/작복미위원(作福未爲願)/막약당권시(莫若當權時)/여인행방편(與人行方便)'

"경을 읽는다고 다 선해지는 것이 아니고 복을 짓는다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힘이 주어졌을 때 상대가 방편을 행하도록 돕는 것만은 못하다'는 뜻입니다. 이때의 방편이란 자기 이익을 돌보지 않고 상대를 안쓰러워하며 상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목련존자가 지옥의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지옥에 들어가면 지옥도 곧 천당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안쓰러워하는 마음을 내니 가능한 일이에요."

신행활동 함께하는 화목한 가정

김병조 씨는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 개그맨이지만 야간업소에 출연하지 않았으며 정치계의 유혹도 있었지만 오직 방송과 <명심보감> 강의만 이어왔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한길을 걸을 수 있었던 데에는 가족의 힘이 컸다. 그는 아내 김현숙 보살과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딸 지현(메릴랜드대 박사 과정)·아들 형주(극단소리 부대표) 씨까지 가족 모두가 독실한 불자로 함께 신행활동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아들 형주 씨는 매년 JTS 모금캠페인의 사회를 함께 맡아 한 무대에 선다. 딸 지현 씨는 미국 유학 중에도 정토수련원에서 100일 출가를 경험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 공부를 할 정도로 신심이 깊다. "가족들 모두가 불자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수경 스님과의 인연이 너무 각별했어요. 이렇게 불교와 인연이 깊다 보니 아이들이 절에서 봉사활동하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가족 모두가 불자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특히 JTS모

금 캠페인에서 아들과 함께 사회를 보고 아내도 모금 활동을 해요. 가족 모두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니 너무나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아버지의 재능을 이어 받은 아들 형주 씨는 현재 뮤지컬 배우이자 극단 소리 부대표로 뮤지컬 '개쉬' '락 흥부전' 등의 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육군사관학교를 가려고 하던 저에게 담임 선생님은 연극영화과를 권했어요. 소풍 가서 사회를 도맡아 하니 재능을 살려보라고 하셨죠. 그렇게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4년 장학생으로 다녔죠. 아들도 저의 재능을 이어받아 동국대에서 연극영화과에 입학해 석사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동국대에서 연등 축제 사회를 볼 때면 동국대가 세계 최고 대학이라고 해요. 그 이유가 우리 아들이 나온 대학이기 때문이라고 하면 대중들 모두 웃음을 터트리죠."

요즘 그의 행보는 바쁘다. 정부기관 교육기관 각 지자체 등에서 최고 인기 강사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그는 사농공상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강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저는 개그도 했고 한학도 했으니 누구나 제 강의를 부담 없이 듣고 또 감동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 주부님들을 상대하는 강의에서 고위 공무원 기업체 CEO까지 모두가 제 강의를 좋아합니다."

백백한 그의 11월 스케줄 표에는 대구 경북대, 강북구청, 법무부 연수원, 김포시 풍무동사무소까지 다양한 계층을 위한 강연이 줄을 잇고 있었다. 현재 완역에 해당하는 청주판 <명심보감> 출판을 위해 원고를 준비 중인 그는 앞으로도 집필활동과 강의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행복하고도 의미 있는 강의를 전해줄 것이다. "불교계에도 나 같이 떠드는 사람 한 명 있어줘야 한다"고 말하는 그는 유쾌한 입담으로 즐거움과 감동 그리고 지식을 동시에 전달해주는 불자 연예인 그리고 <명심보감> 강사로 세상을 밝히고 있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뮤지컬 배우인 아들 김형주 씨(오른쪽)와 JTS 캠페인 공동 사회를 맡아 활동



80년대 최고 인기를 누렸던 당시 활동 장면

전법일기

글로벌 템플스테이 서포터즈

글로벌 템플스테이 서포터즈는 세계에서 모인 청년들이 프렌드십을 형성하며 템플스테이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외국의 청년들과 교류하며 자원봉사를 하는 활동이다. 이번에는 15개국의 56명의 청년들이 지원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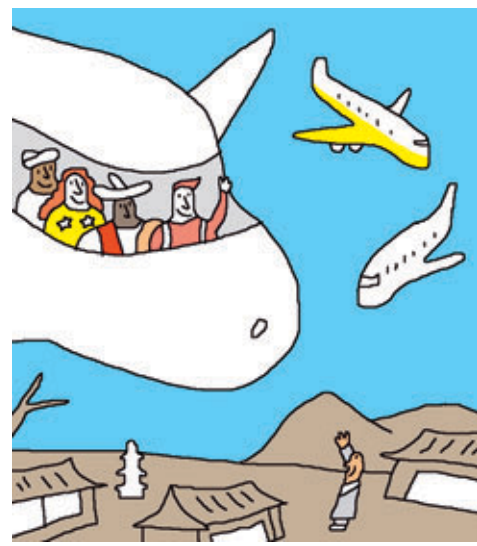
이들은 무료로 불교에 대해 2달 동안 교육을 받고 2회의 템플스테이를 통하여 한국불교문화를 이해하고 템플스테이를 홍보하게 된다. 이번 행사는 용인 법륜사에서 열렸다. 1회 때는 불교 전반의 교리와 사찰예절이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한국불교 수행전반에 대해 경험해 보는 시간이다. 나는 지도법사로서 매주 수요일 저녁에 있는 교육은 물론 1회에 이어서 한국불교의 전반적 수행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담당하고 있다.

모처럼 사찰에 와서 수련복을 입은 청년들은 사뭇 들뜬 표정들이다. 어느덧 교육의 막바지에 이르면서 친해진 청년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특만 나면 영어로 즐거운 이야기 가 꽃핀다. 입재식이 끝나고 먼저 오디오에 따라 영어로 된 108배를 했다.

세계의 청년들이 참회와 발원으로 이어지는 108배를 하는 모습은 보는이로 하여금 가슴 벅차게 한다. 끝나고 소감을 물으니, 예전에는 뜻도 모르고 절을 했는데 뜻을 알고 하니 마음이 차분해져서 좋았다고 한다. 뒤를 이어서 영어로 된 (보왕삼매론)과 (자비경)을 읽음으로써 경전독송의 느낌을 체험하고 나서 참선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염불수행 체험이다. 관세음보살에 대한 설명과 염불하는 의미, 특히 수행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고 함께 관세음보살 정근을 한다. 20분

불교 알아가는 문답의 기쁨



그림·박구원

정도 정근을 한 후 느낌을 물어보니 생각이 없어지고 어떤 큰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고 한다. 한 외국인인은 자신은 잡념이 많아서 참선은 어려운데 염불을 하시는 집중이 잘 된단다.

저녁공양을 하고는 칭찬명상을 하였다. 팀을 나누어 한 사람에게 눈을 감게 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그동안 보아온 좋은 점을 한마디씩 하는 시간이다. 눈을 감고 칭찬의 소리를 들음으로서 자신에 대한 긍지를 갖고 좋은 말의 수행이 얼마나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지를 느끼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칭찬이란 참으로 묘한 힘이 있다. 모두가 행복한 얼굴이 된다.

어떤 외국인들은 눈물을 머금는다. 아,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칭찬에 인색했었는가! 칭찬은 상대에 대한 신뢰를 주고 관계를 좋게 만든다. 다들 신이났다. 진지하게 그동안 고마웠던 점과 그 사람

의 좋은 점을 이야기 한다. 어느덧 밤은 청년들의 밝은 웃음 속에서 깊어간다. 세계의 청년들과 어울린 우리의 청년들. 바쁜 현대사회의 대학생들은 종교생활을 할 여유가 없지만 서포터즈 프로그램으로 불교와 영어를 진지하게 만나는 청년들은 그 누구보다도 복이 많은 것 같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한 청년이 다가왔다. "스님, 지장보살이 지옥을 중생을 구제하고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제하고 계신가요?" 날카로운 질문이다. 나름대로 설명을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불교는 참으로 멋있네요!" 한다.

또 다른 청년은 "스님들은 어떻게 경험을 하지 않고도 세상일을 잘 알지요? TV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해주시는 스님을 보면 신기해요" 라고 감탄하기도 했다.

다음날 새벽4시에 일어나 예불을 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들의 몸과 마음이 맑아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커다란 행복이다. 아침을 먹으며 가며 조심스럽게 한 외국인이 다가와 질문을 한다. "스님, 겨울에는 추워서 몸을 어떻게 유지하나요?" "장삼 속에 옷을 많이 입지요" 했더니 "그래요?"라며 활짝 웃는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그들에게는 참으로 궁금한가 보다. 많은 질문 속에 지내다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교와 스님에 대해 새삼 알게 된다. 글로벌 템플스테이 서포터즈 프로그램은 이시대의 청년들에게 커다란 휴식과 희망을 주는 좋은 프로그램임이 분명하다.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선원장)

대행큰스님 말씀과 어린이들의 그림이 함께하는

2014 마음 다이어리

2014 마음 다이어리에는 이런 것들이 담겨있어요

- 1 하루 하루의 지침이 되어주는 스님의 말씀
- 2 새싹 같은 마음으로 담아낸 아이들의 그림
- 3 늘 지니고 다니는 뜻으로 풀 경전의 소중한
- 4 날짜에 구매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free note!!!

구입처: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각 지원 중무소
 온라인 구매: 한마음저널 공식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daum.net/hanjournal> (숲속가게 클릭)
 문의: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한마음저널 편집실 031-470-3180